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 무르익은 팀워크 X 화려한 디저트 라인업으로 빛난 영업 2일 차! 전 세대의 눈과 입 모두 사로잡았다!

2026. 5. 26.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 무르익은 팀워크 X 화려한 디저트 라인업으로 빛난 영업 2일 차! 전 세대의 눈과 입 모두 사로잡았다!







선호가 주문서 정리하는 사이

<봉주르빵집>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시니어 디저트 카페'를 배경으로 인생의 맛을 아는 어르신들과 행복의 맛을 아는 빵집 식구들이 달콤한 위로와 온기를 나누는 힐링 베이킹 예능.

지난 22일(금) 공개된 3화에서는 영업 2일 차를 맞은 <봉주르빵집> 식구들의 분주한 하루가 그려졌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주문 속에서도 주방과 홀은 빈틈없는 호흡을 자랑하며 첫 날과는 확실히 달라진 반전 활약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주방과 홀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능력치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차셰프' 차승원은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오늘의 디저트 라인업을 '번개'처럼 구워내며 주방을 진두지휘했다. 보조 셰프 이기택은 매의 눈 '차셰프' 앞에서 정신줄을 바짝잡고 세심한 실력을 발휘하며 '섬세택'으로 거듭났다. 손발을 착착 맞춰가는 주방팀의 찰떡 호흡은 보는 이들에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

홀팀 역시 특급 센스와 다정함으로 빵집의 생기를 책임졌다. 사장님 김희애는 혼자 오신 할아버지를 위해 깜짝 구움과자 선물을 챙기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줬다. 김선호는 눈코 뜰 새 없는 와중에도 프로 바리스타 모드로 돌입, 정성 가득한 '선호 라테'를 완성하며 비주얼과 맛을 모두 잡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번 3화의 백미는 시청자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은 화려한 디저트 라인업이었다. 김선호와 이기택이 직접 공수해 온 고창 특산물 들은 차승원의 정교한 손끝을 거쳐 환상적인 프랑스 디저트로 재탄생했다. 싱그러운 '봉주르 딸개·블루베리 에플레어'부터 '봉주르 복분자 마들렌·청보리 브리오슈', 그리고 '차셰프'의 회심작 '봉주르 동백 타르트'까지 연이어 등판했다. 낯선 프랑스 디저트에 익숙한 우리 재료를 더한 특별한 메뉴들은 어르신 손님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달콤한 디저트 한 조각으로 피어난 손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빵집을 가득 채웠다. 생애 처음 카페를 찾아 손녀들과 바닐라라테를 나누며 추억을 기록한 할아버지부터 아빠의 친구들을 모시고 온 딸의 따뜻한 마음까지, 동네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채워나간 풍경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초보 영업을 지나 맛과 멋, 그리고 깊은 감동까지 꼭 잡은 <봉주르빵집>의 무르익은 영업을 세대를 관통하는 따뜻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무해한 웃음과 따뜻한 온기로 기분 좋은 달콤함을 전하는 <봉주르빵집>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